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가정준 프란치스코, 이수진 아녜스

다음주 미사 독서: 홍진국 클레멘스, 한영주 리드비나

금주 미사 복사: 신승원 로이

다음주 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따

금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윤지희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지원 카린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2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3월 9일, 3월 23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3월 3, 17, 31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3월 16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심하게 논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논쟁 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셋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올라간 세 제자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눈이 부시게 변화되신 것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조상들과 맺으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이상 다른 증거와 표징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하느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영광스럽게 변모시키셨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하느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내적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변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느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의 가치관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느님 때문에 변화된 삶, 그것이 신앙인이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대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사순 제 2 주일]

<제 1 독서> 창세기 22,1-2.9 ㄱ.10-13.15-18

<제 2 독서> 로마서 8,3 ㄴ

화답송

-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 “나 참으로 비참하구나.”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
- 아, 주님, 저는 당신의 종,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
-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주님의 집 앞뜰에서,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환호송

마르코복음 9,2 - 10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천장이든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오늘의 성가] 시작: 122 봉헌: 332 성체: 344 파견: 118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 thekco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2012년 3월 3일



변화의 원리

고준석 토마스아퀴나스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수)

사순 제2주일,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의 빛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실천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이는 어떠한 기쁨도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다음과 같은 묘비명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아,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가족이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도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는지.”

참 마음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변화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발전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변화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위의 묘비명의 내용처럼 세상은 오히려 변화되지 않고 아픔만이 가득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 변화의 진정한 원리는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먼저 나를 바꾸는 것.

사실 나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나의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를 바꾸자 놀랍게도 가족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 묘비명의 희망처럼 어쩌면 세상 역시 변화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항상 하는 말, 회개, 이 말은 항상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변화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참사랑입니다.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랑만이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킬 있습니다.”

† 공지사항

-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사순시기를 맞아 Rice Bowl 모금을 진행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진 베드로)
- 구역이 변경 되었습니다. 1 구역이 두 개의 구역으로 분할 되었습니다. 3월 구역 모임 때 구역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구역명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미사 후 새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 작년 한 해 고생해주신 사목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3월 독서/간식/청소: 2 구역



교리상식

교중미사란?

글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독산 1 동성당 주임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미사(Missa)라는 말은 라틴어의 'Missa'를 한자로 음역한 데서 유래합니다. 라틴어 미사(Missa)는 '보내다', '파견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미테레 (Mittere)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즉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기쁨을 나 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파견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로마 10,15)

원래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미사를 거룩한 잔치인 식사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에서 ‘빵의 나눔’ 혹은 사랑의잔치인 ‘아가페(Agape: ‘조건없는 사랑’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라고 했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사도 2,46)2~3세기에 와서는 미사를 감사의 의미에 비중을 두면서 에우카리스타 (Eucharistia: ‘감사를 드린다’는 뜻의그리스어)로 지칭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 중에 교중(敎中)미사는 어떤 미사인가요? 교중미사란 본당 사목자가 매 주일 신자가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개별적인 미사지향 없이 모든 신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바치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미사 (살아있는 있는 사람을 위한 미사), 연미사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미사)는 교중미사가 아닌 다른 미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중미사는 개별적인 지향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지향을 둔 미사로서 다른 미사보다는 조금 더 성대하게 거행됩니다.

교중미사는 모든 교우를 주님께 봉헌하는 사제의 감사와 기쁨을 엿보는 때이며 본당 사목자의 사랑을 얻는 미사입니다. 본당사목자가 ‘본당의모든 교우들’을 주님께 봉헌하는 미사이기에 가장 아름다운사랑의 교류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본당 신부님의 정성과사랑이 흠뻑 담긴 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한 공동체를이룬 본당 가족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같은 빵을 쪼개어함께 나누며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사랑 (아가페)과 감사 (에우카리스타)의 거룩한잔치인 교중미사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사랑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참여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시편 133,1)